

고령화 사회의 가족생애주기 분석*

: 1987년 공세권 연구와의 비교

진 미 정(서울대 교수) · 변 주 수(서울대 박사과정)

평균 수명의 증가는 개인 생애주기의 연장을 의미할 뿐 아니라 가족 생애주기의 변화를 의미한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교육, 결혼, 출산 등과 같은 성인기로의 전이를 상징하는 생애사건의 경험 시기가 지연되고, 동거, 이혼, 재혼 등 결혼과 관련된 결정들이 다양화된다. 가족의 형성과 유지가 표준화되어 있는 근대가족에서는 가족생활주기(family life cycle)이라는 개념으로 하나의 가족단위가 형성하여 소멸될 때까지를 단계화하여 생애주기를 연구하였다. 후기근대사회에서는 결혼과 출산을 둘러싼 개인의 자발적, 비자발적 선택이 증가하게 되면서 표준화된 단계를 가정하는 가족생활주기 개념이 적용되기 어려워졌다. 이러한 이유로 가족 연구자들은 가족생활주기 개념을 폐기하였으며, 가족의 생애주기보다는 한부모가족, 1인가구 등 다양한 가족 유형이나 가족의 미래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가족 생애주기에 대한 분석은 한국사회에서 근대가족 유형이 어떻게 후기근대적 유형으로 전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분석 틀이 될 수 있다. 가족의 다양성이 전개되는 방식을 시간적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답론적 차원이 아닌 실증적 차원에서의 가족 변화를 설명해낼 수 있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생애주기에 대한 실증적 분석은 1987년 공세권의 연구 이후로 거의 단절되었다. 공세권은 ‘한국의 가족생활주기조사’를 통해 15-64세 기혼여성 3,013명을 대상으로 1935-44년 결혼코호트부터 1975-85년 결혼코호트까지 5개의 코호트별로 가족생활주기 6단계(형성기, 확대기, 확대완료기, 축소기, 축소완료기, 해체기)의 구성비율과 구성시점을 비교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여성가족패널 1, 2, 3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가족생애주기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30년 전에 수행된 공세권 연구와 비교하여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한국가족의 생애주기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세권과 동일한 추정방식에 따라 1958-64년 결혼코호트부터 2005-2007년 결혼코호트까지 6개 코호트의 가족생애주기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공세권 연구에서 관찰되었던 마지막 코호트(1975-85)까지 가족형성기 기간이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다가 1985-94년 결혼코호트부터 다시 기간이 증가하기 시작하고, 확대기 기간 역시 75-84년 결혼코호트까지 감소하다가 1985-94년부터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공세권 연구에서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 확대완료기는 그 이후 코호트에서도 계속 증가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축소기는 계속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으며, 축소 완료기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1965-74년 결혼코호트와 95-2004년 코호트를 비교해볼 때, 부인의 평균 초혼 연령은 21.8세에서 26.58세로 증가하였고, 평균 초산 연령은 26.3세에서 27.82세로 증가, 막내자녀 출생연령은 28.3세에서 30.45세로 증가하였다. 출생아 수는 2.90명에서 1.89명으로 감소하였으며, 유배우율은 95.8%에서 97.51%로 약간 높아졌다.

이러한 결과는 지난 30년 동안 가족생애주기가 역동적으로 변화해 왔으며, 가족의 변화를 파악하는데 유효한 틀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향후 보다 면밀한 분석을 통해 가족생애주기가 개인의 생애과정과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파악함으로써 가족의 변화를 다각도로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본 연구는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3S1A5A2A01017627).